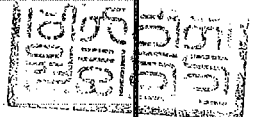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신 태 항	일본명	
	한 자	申 泰 恒	이 명	
출 생 연월일	미 상		사 망 연월일	미 상
본 직	미 상			
주요 경력	1904년 이전			
	1904년 ~ 1945년			
	1904.10.30	일진회 사찰원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27쪽)		
	1904.11.1	일진회 사무원 (같은 자료)		
	1907.5.7	일진회 궁내부조사위원장 (같은 자료, 卷之四, 37쪽)		
	1907.8.13 현재	일진회 평의원 (같은 자료, 卷之五, 7쪽)		
	1908.12.21	일진회 평의원 仍任 (같은 자료, 卷之六, 46쪽)		
	1910.5.31	일진회 경상북도지부회장 (같은 자료, 卷之八, 9쪽)		
1921.5.13	동학구락부 발기인 (조선독립운동 제1권 분책, 조선국내의 민족주의운동, 607-608쪽)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  
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와 관련하여

1)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문명사, 1911, 41~42쪽.

“(1909년 12월 3일) 하오 7시 30분에 본부 내에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이용구가  
설명하기를 현금 國과 民의 위태로운 형세가 시일이 절박한즉 부득불 우리 황실을  
존영케 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토록 복리를 누리게 하며 위로 정부로부터 아래로  
사회에 이르기까지 더욱 발전하기로 목적하여 萬世無窮의 기초를 확정하고 政合邦  
을 성립케 할 일을 우리 황상폐하께와 대일본천황폐하의 天聽의 上徹하여 期圖實  
行하자 함에 會衆이 일치가결하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53~56쪽.

「전국동포에게 포고한 성명서」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머리에 충만한 조국정신을 분발하고 큰 소리를 질러 방  
금 일본 여론의 주창하는 근본적 해결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물결을 막고 파도를  
잡자게 하고 우리 대황제 폐하와 대일본 천황폐하의 天聽을 꿰뚫는 一團精誠으로  
哀訴하여 우리 황실의 만세 존송하는 기초를 공고히 하며, 우리 민족의 일등 대우  
하는 복리를 향유하여 정부와 사회를 더욱 발전하기로 주창하여 일대 정치기관을  
성립할지면 우리 한국의 보호열등에 있는 수치를 해탈하고 동등정치의 권리를 획득  
하는 법률상 政合邦이라 하는 일문제이라. (중략)

음희 3년(1909) 12월 4일

일진회장 이용구  
동 회 원 백 만”

▶ 『황성신문』, 1909년 12월 5일 2면, 「一進議決」.

“再昨夜에 일진회 본부에서 임시대회를 열고 在京 회원 약 250명과 지방으로 上京한 회원 80여명 합계 330여명의 회원이 합동하여 한일 양국에 관계된 서류를 대황제폐하게 봉정하고 통감부에 송치할 次로 起草하기를 결의한 후 폐회하였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5일 2면, 「합병한다네」.

“일진회에서는 재작일 밤에 회를 크게 하고 서울회원 이백오십명과 지방회원 칠십여명이 출석하여 한국과 일본을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작일에 대황제폐하게 상주문을 봉정하고 증미통감에게 건의서를 보내었다더라.”

▶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원서방, 1966, 527쪽.

“(전략) 그런데 이날 밤 총회에는, 총무원 및 지방의 평의원을 합하여 3백여 명이 출석하였다(이전부터 경성에 소집된 자 80여명). 그리하여 대체로 贊否를 물었더니, 반대자는 겨우 2명뿐이었다.”

▶ 『통감부문서』 10권, 24 통감상경증왕복서류, 「(21)菊池忠三郎에 관한 보고 이첩, 菊池忠三郎에 관한 건(憲機 제471호 사본)」.

“[부속서] 본일 桂후작으로부터 拙者에게 다음과 같은 內訓이 있었다.

一. 일진회 및 기타 합방의견서는 其筋을 受理하고 합방반대의견서는 모두 각하할 것을 了解해야 함. (중략)

三. 일진회가 多年 親日的 操志의 苦節을 守하여 온건 통일한 행동을 취하고 양국을 위해 盡悴하여 온 성의는 능히 了得하고 있다. (중략)

명치 43년(1910) 2월 2일

杉山茂丸”

## 2) 합방청원운동과정에서 신태항의 지위와 활동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六, 45~47쪽.

“(1908년 12월 21일) 하오 3시에 총무원회를 열고 (중략) 평의원 (중략) 신태항 (중략) 仍任하다.”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57~58쪽.

“(1909년 12월 7일) 하오 3시에 임시총회를 열고 (중략) 부회장 홍공섭과 원임총무원 한석진, 윤길병의 퇴회청원서를 서기가 낭독 공포함 (중략) 전태현이 동의하기를 부회장이 이제 欠闕인즉 금일 총회에 선거하자 하여 신태항의 재청으로 일치 가결함 (중략) 윤정식이 특청하기를 부회장이 이미 선정된 이상에는 총대 2인을 임시회장이 自辟 파송하여 부회장에게 출석함을 권고하자고 시행함. 총대 박해묵, 신태항(후략)”

▶ 흑룡회 편, 『일한합방비사』 하, 728쪽.

“「일진회 해산비 분배표」

(중략) 多年在京地方會員勤勞 일금 1백 5십원 (各人 앞) (중략) 신태항 (후략)”

▶ 『日韓合邦記念塔建設ニ就テ』, 1934, 15~17쪽, 21쪽.

「日韓合邦記念塔記」

“(전략) 합방의 주창자 일진회 회장 이용구는 속히 일한합방을 성취하여 부하 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고 만주로 이주하고, 그곳에 근거를 만들어 日滿聯邦을 실현하여 이를 아세아 전역에 미칠 것을 계획한 것으로서 이 일 모두를 송병준 및 우리 들[흑룡회-작성자]과 협의하였다. 한국의 여론을 지도하거나 彼我[일본과 朝鮮의 성자] 在朝의 諸公을 움직이고 혹은 청원서를 제출하여 백방으로 고심하여 드디어 1910년 8월 29일의 조서를 내려 받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이에 일한합방기념탑을 건설하여 영구히 명치천황의 유업을 찬미하여 받들고 아울러 이용구·송병준 두 사람을 시작으로 당시 합방에 공헌한 朝野 同志의 이름을 새겨 탑 속의 석실에 씌우므로써 이를 영원히 전한다. (중략)

「일한합방기념탑 내 석실에 봉납된 공로자 芳名」

일진회 도회장 및 평의원 기타 役員

(중략) 신태항 (후략)”

## 편 람

일진회는 1909년 12월 3일 일진회본부에서 총무원과 평의원 등 약 300여 명

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합방을 청원하기로 의결하고, 12월 4일 순종과 내각·통감 앞으로 일진회 명의의 상소문과 장서를 보내고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때 **신태항**은 일진회의 평의원이었다.

1909년 12월 7일 일진회본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합방청원에 반대한 부회장 홍공섭, 원임총무원 한석진, 윤길병이 제출한 퇴회청원서를 수리하고, 부회장 및 평의원장을 선출할 때, 이 회의에 참가하여, 신임 부회장에게 출석을 권고할 총대로 임명되었다.

**신태항**은 1910년 9월 12일 일진회가 해산될 당시 일본으로부터 해산비 일금 150원을 분배받았다.

1934년 11월 29일 일본우익단체 흑룡회가 동경의 메이지신궁 표찰도 신궁교 옆에 세운 일한합방기념탑의 석실 안에 일한합방공로자로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신태항**이 1909년 12월 3일 열린 일진회 임시총회에서 합방청원방침을 결정하고 12월 4일 합방상소문과 청원서를 순종과 내각, 통감에게 송부하고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한 때부터 1910년 2월 일본정부가 일진회 및 기타 합방청원서 수리방침을 표명할 때까지 합방청원과정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약**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태항**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